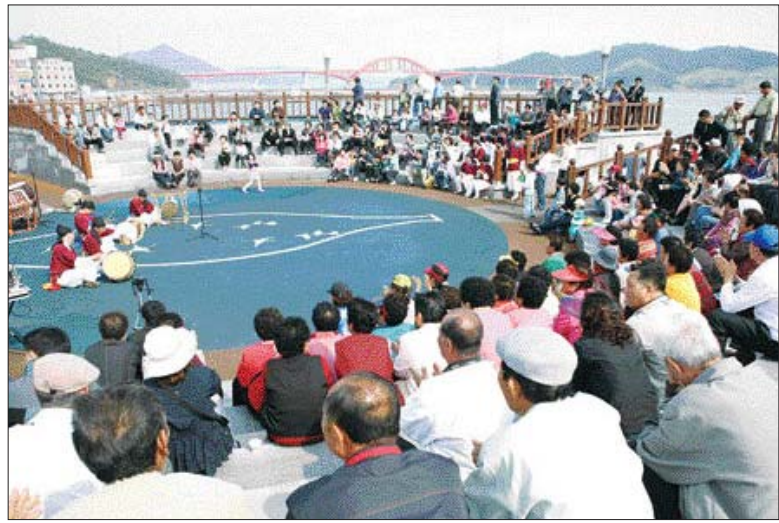


강진 마량항 관광지 급부상

고금대교 개통 후 유동인구 3배 급증 '토요음악회' 등 볼거리 제공도 '한몫'

강진 마량~완도 고금 간 고금대교 개통이후 마량항이 관광지 급부상하고 있다. 주말을 이용해 낚시 등 해양 레포츠를 즐기려는 여행객들이 고금·약산 등 천혜의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포인트'를 찾아 몰려들고 있다. 또 매주 토요일에 '마량 토요 음악회'(사진)가 열리는가 하면 각종 편의시설과 저렴한 가격에 싱싱한 활어를 구입할 수 있는 어판장 등 볼거리와 먹거리를 갖추면서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달 29일 고금대교 개

통이후 가족단위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횡집, 노래방, 숙박업소 등의 매출이 이전에 비해 30%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관광객이 늘면서 보다 쾌적한 관광을 위한 주민과 상인들의 노력도 가시화되고 있다. 마량면 지역발전협의회와 요식업 관계자 등 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은 깨끗한 미항관리와 관광객에게 친절 한 서비스를 제공해 '남도답사 관광1번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각종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마량면사무소 박봉석 씨는 "주말



마다 수천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등 연륙교 개통이후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3배 정도 증가,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이 추진하는 '미항 마

량항 가꾸기 사업'은 지난해까지 1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추가로 어촌개발 분야와 공인화사업 분야에 50억 원이 투입된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나주목(牧) 관아·향교 국가 사적 지정

관아 복원 등 연차적 정비

나주목(牧) 관아와 향교가 국가 지정문화재 사적 제483호로 지정됐다. 나주시는 "문화재청이 30일자로 나주목 관아와 향교를 문화재보호법 제7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483호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나주목 관아와 향교는 전국에 남아 있는 관아 건물과 향교 총 314개소 중 관계전문가의 자문회

의 및 2회의 현지조사를 통해 사적으로 지정됐다. 나주목 관아와 향교는 조선시대 관아와 향교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으로 조선시대 지방행정 및 교육기관의 입지조건과 건축적 양식이 담겨 있다. 나주시는 사적으로 지정된 나주목 관아와 나주향교에 대해 나주지역의 특색에 맞게 '관아 복원·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연차적으로 사적내 사유지 매입 및 발굴조사, 관아 복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



나주 옛 관아 목사내아(사진 위)와 향교 대성전.

진할 계획이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다슬기도 잡고 피서도 하고 30도를 훌쩍 넘는 찜통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휴일인 29일 강진군 탐진강에서 다슬기를 잡는 피서객들의 모습이 시원스럽다. /연합뉴스

전남권 해수욕장 기업 휴양소 '인기'

기아차·광양제철소·현대삼호중 등 임직원·가족 등 5만여명 다녀갈듯

전남도 내 해수욕장이 기업체 임직원 및 가족 휴양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 여름 도내 해수욕장 개장을 예년보다 20여 일 앞당기고 전국 기업체를 방문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벌인 결과 현재까지 모두 18개 기업체가 도내 해수욕장에 하계

휴양소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욕장별로는 고흥 나로도 해수욕장에 광양제철소 임직원 9천여 명을 위한 하계 휴양소가 설치됐고, 보성 울포해수욕장에 삼호중공업 임직원 1만여명, 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에 기아자동차 임직원 4천500여 명 등 총 5만여 명에 이른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이해 지난 해 같은 기간 2만 2천여 명의 2배가 넘는 것으로 관광과 휴식을 위한 해수욕장 여건과 우수성이 널리 알려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업체 하계 휴양소 유치 등 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전남 관광과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해수욕장 방문객 700만 명 유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그물쳐 놓고 개매기 잡자

함평 돌머리 체험행사

개매기 체험 행사가 함평 돌머리 해수욕장에서 28일부터 8월말까지 4차례 열린다.

함평군 석두주민자치협의회 주관으로 열리는 개매기 체험행사는 인공풀장 인근에 길이 700m, 높이 4m의 그물을 설치해 다음달 1, 11, 15일 등 4차례 열리며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개매기는 바닷가 갯벌 위에 그물을 쳐 놓은 다음 밀물 때 조류를 따라 들어온 물고기떼를 썰물 때 감히도록 해 손으로 잡는 전통 어로방식이다. 또 물이 빠진 뒤에 넓게 펼쳐진 갯벌에서 고동과 개, 조개류 등 다양한 바다생물을 잡는 갯벌생태학습장과 인공풀장에서 참숯을 넣어 키운 뱀장어 잡기 이벤트 등도 마련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개매기 행사에 참여하려면 잡은 고기를 담을 수 있는 어망과 갈아입을 옷 등을 준비하면 된다"고 말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손톱에 봉숭아 물 들이세요"

농업박물관, 8월 한달간 체험행사

전남도 농업박물관(관장 김석오)은 오는 8월 1일부터 한 달간 '봉숭아 물들이기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농업박물관은 행사 기간동안 봉숭아 물들이기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해 관람객들에게 무료 제공, 갖가지 색깔의 봉숭아꽃을 절구에 넣고 찼어 손과 발톱 등에 봉숭아 물들이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99년부터 매년 봉숭아 물들이기 행사를 진행해온 농업박물관은 봄철에 야외전시장 곳곳에 봉숭아 씨를 뿌려 재배해 왔다. (사진) 김석오 관장은 "봉숭아 물들이기는 붉은 색이 악귀를 물리친다는 민간 신앙적인 의미가 내포돼 있다"며



"잊혀져 가는 우리 고유의 전통미를 자녀와 함께 체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김한범기자 hnkim@

여수 '이순신 광장' 축소 조성

市 "사업비 과다" ... 부지매입 기대 주민들 불만

여수시가 '이순신 광장' 조성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해 추진하기로 했다. 여수시는 "원도심인 중앙동 일대 2만 5천900㎡에 총 사업비 620억 원을 들여 2009년 완공목표로 이순신 광장을 조성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말 착공되는 이순신 광장 조성 사업은 여수시가 거북선을 만들었던 중앙동 진남관 앞을 역사·문화 체험 관광 명소로 만들어 원도심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

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최종 방침은 850억 원을 들여 중앙동 일대 3만㎡에 광장을 조성하겠다고 지난해 말 발표했던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것으로, 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을 기대했던 일부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중앙동 주민 하모(45)씨는 "시가 건물, 토지 보상비를 주고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 기대를 했던 일부 주민들이 시의 사업 계획 축소로 보상 대 상에서 제외되자 불만을 터뜨리고 있

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애초 계획 대로 추진하려면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지표 조사를 받아야 하는 데다 사업비 과다 문제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축소했다"며 "앞으로 이순신 광장 주변도 개발해 원도심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박영규기자 ykpark@

光州日報 인터넷 신문
www.kwangju.co.kr

정통공중요리의 깊고 풍부한 자연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습니다! **농食同源**

농부푸드 주식회사 TEL: (062)972-5254

SONY BRAVIA TV 보상판매

값고 재신 TV를 소니 BRAVIA TV로 보상판매 합니다

● 행사기간 : 2007년 7월 9일~2007년 7월 31일
● 행사내용 : 보상판매하는 모든 제품도 TV가 적용됩니다.
● 행사대상 : 40L~40V21000

보상금 : 2,800,000
→ 특별가 : 2,300,000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파세오' 황학의신 황학난방이 핵심입니다.

(주)태양성시 TEL: (062)262-0101